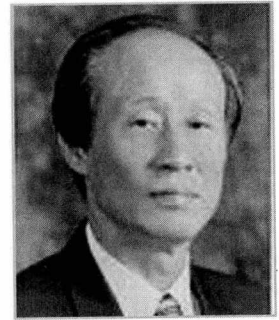




아시아 물류표준 한국이 이끌어간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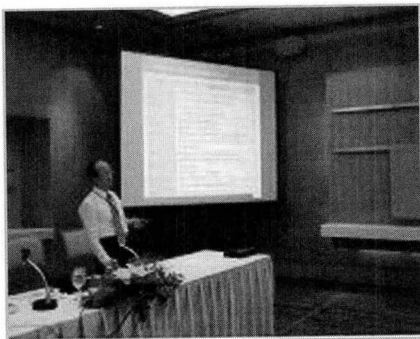
“아시아 유닛로드 스쿨”설립과 목적, 의의, 운영 기대효과등에 대해서 KPCA 박은규 상근 부회장과
과의 인터뷰내용 요약입니다.

-편집자주-



(주)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
상근부회장 박은규

이번 태국에서 처음 개설된 아시아 유닛로드 스쿨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역내 물류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역사적 사건이다.



박은규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부회장은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‘아시아 유닛로드 스쿨 단기 연수교육’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.

박은규 부회장에 따르면 태국, 베트남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필리핀 등 아시아 5개국의 연수생 33명이 참가한 이번 태국 연수의 의의는 크게 3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.

그 하나는 아시아 지역 국가별로 유닛로드 시스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각국에 유닛로드 시스템 보급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이다. 또 하나 아시아 각국에 유닛로드 시스템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아시아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는 점.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번 교육이 100% 우리나라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우리가 후원함으로써 아시아 물류발전의 리더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.

유닛로드시스템은 표준 파렛트를 기반으로 하는 원스톱 물류시스템이다. 박은규 부회장은 **“파렛트가 물류표준화의 출발이다”**며 **“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표준 파렛트가된 T-11형(1,100mm×1,100mm) 표준 파렛트를 기반으로 하는 유닛로드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아시아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은 어렵지 않게 실현될 것”** 이라고 전망했다.

‘역내 통합물류시스템이 구축되면 역내 생산지에서 각국 소매점포까지 환적작업 없이 신속, 안전, 정확, 저렴한 물류가 이루어져 물류효율 증진과 함께 교역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’ 이라는 것이 박 부회장의 기대다. 물류공동화가 이루어져 물류기기의 회수, 반복사용에 따른 환경보호 효과와 자원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.

교육 후 연수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교육내용 만족도가 높았고 연수생 모두 자국의 물류표준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보였다. 특히 이러한 교육이 아시아 각국에서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한국의 선진화된 물류 산업 현장을 방문, 우수사례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시아 국가 물류인들의 바람임이 확인됐다.



박은규 부회장은 **“아시아 유닛로드 스쿨은 APSF(아시아 파렛트 시스템 연맹) 사업 활성화에도 필요한 교육과정”**이라면서 **“아시아 유닛로드 스쿨과 APSF가 낼 시너지 효과는 클 것”**이라고 내다봤다.

앞으로 **유닛로드 시스템 관리사 자격증 제도**를 만드는 계획. 박은규 부회장은 **“국가 자격증이 되면 더욱 좋겠으나, 민간단체가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에 대해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내 물류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를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면 기업 물류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”** 이라고 강조했다.